

朝鮮後期 京畿地方의 都會研究

張 承 一*

조선후기 경기지역은 한강수운을 비롯한 'X'자형 간선도로망의 중심에 입지하여 재화와 정보, 기술의 유입이 他道에 비해 빠른 곳인 뿐 아니라, 행정·상업·위수기능이 집중하여 도회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다. 조선후기의 도회는 고급행정중심지를 제외하면 대개 3,000~5,000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작은 규모로 도회거주민은 관리, 상인, 장인, 노비 등 非農民層이 주류를 이루었다. 경기도 내에 비농업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한 곳은 한성과 개성을 비롯해 모두 52곳이다. 이들 중 인구 3,000명 이상의 도회로 성장한 곳은 29곳인데 대부분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망인 'X'자형 도로망 중 서북-동남축을 따라 분포하였다. 경기도의 도회를 중심지의 인구규모와 도회기능의 소유 정도에 따라 계층화하면 6개의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등급별 도회상황을 살펴 본 결과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도회화의 정도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지만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전체적인 도회의 모습에 있어서 그다지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主要語 : 전산업형 도시, 도회, 도회기능, 도회계층

1. 序 論

1) 研究目的

都市는 인간이 만든 여러 문화현상들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곳으로 지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前産業型 都市에 관한 연구는 도시지리학과 역사지리학 분야 모두에서 소홀하게 여겨진감이 없지 않다. 전산업형 도시에 관한 연구는 현대도시에 관한 연구 못지 않게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전산업형 도시에 관한 연구가 한국 전통도시의 원형을 찾는 중요한 열쇠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국 都市史 정립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전산업형도시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가지 요소인 시민, 도시적 활동, 시가지 형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고, 조선후기 도시가 수행하였던 기능을 살펴 봄으

로써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의 역할을 살펴 보았다. 전산업형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수적으로는 주변 농촌지역의 인구보다 적으나 시민의 대부분이 영향력 있는 支配層 또는 財力家라는 점에서 주변 지역구조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번째 목적은 조선후기의 도시분포와 분포상의 특징을 밝히고, 도시분포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검토함으로써 조선후기 지역구조 복원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끝으로 도시의 계층과 계층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 도시계층을 복원하는데 세번째 목적이 있다.

도시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도시는 해당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라고 인식하는 취락을 의미할 수 있다(Corfield, 1982).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라고 인식되는 취락은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조선후기의 도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농업적인 기능을 가진, 그리고 농촌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작지만 집단화된 조선후기의 취락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을 도회로 정의하였다.¹⁾

2) 研究方法

본 연구는 조선후기 한성부와 경기지방의 도회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한성부를 본 연구지역에 포함시킨 이유는 경기지방 여러 도회의 기능이 한성부의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양자를 분리하면 경기지방 諸都會의 특성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된 주요 문헌은 전산업형도시에 관한 주요 논문 및 『輿地圖書』(1757?), 『京畿誌』(1842), 『大東地志』(1864), 『京畿邑志』(1871) 등과 같은 읍지류, 그리고 20세기 초 일본정부에 의해 발행된 통계연보 및 각종 조사자료들이었다. 또한, 각 군 읍지도와 대동여지도, 1919~1927년에 발행된 1/50,000 지형도 및 조선총독부 간행 朝鮮各道府面間里程圖(1916) 등을 통해서 교통로, 정기시장의 위치, 시가지 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越智唯七의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中央市場, 1917)은 19세기 중반 조선의 행정구역을 지도로 복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도회계층 연구는 개항 이전인 19세기 중반을 대상으로 하여 외세에 영향을 받지 않은 우리나라의 전통도회계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都會部 인구규모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戶口總數』(1789)를 선택하였다. 『호구총수』의 발행시기는 연구대상 시기인 19세기 중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²⁾ 『경기지』나 『경기읍지』에 나오는 호구수가 군별로 일관성이 없어 도회부의 인구만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호구총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옛 자료의 경우 그 정확성에 문제가 있어 인구학적 방법을 통해 재구성해야할 경우가 있는데(Rozman, 1982) 호구총수도 재구성 작업이 필요하였다.

19세기 중반 경기지역의 도회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참조한 문헌은 『林園十六志』(1930)와 『大東地志』(1864)이다. 이 두 문헌은 편찬시기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장시의 위치와 군영 설치 지역 등을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

다. 도회계층 분석은 도회인구와 도회기능의 소유횰도를 지표로 하였다.

2. 朝鮮後期 都會의 개념

Childe(1950), Sjoberg(1960), Mumford(1961) 등에 의하면 산업화 이전의 도시는 다수의 인구가 집중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비농업적인 각종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신분 계급이 발달해 있고 계층간 유동성이 적고 상·공업보다는 정치·종교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여 성립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산업도시의 일반론을 역사적 배경이 다른 '조선후기의 도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선후기 都會人口規模, 도회거주민의 性格, 都市의 活動, 그리고 都會의 形態 등을 고찰함으로써 당시의 도회 개념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³⁾

1) 인구 규모

조선후기의 도회부 인구규모를 파악하는데『도읍이 되는 자료로 『戶口總數』가 있다. 이 책은 정조 13년(1789년) 8도의 호구수를 府·郡·面 단위로 자세히 세분하여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각 지방의 주요 고을별 호구수의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자료의 유용성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조선후기의 호구조사는 國役編制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방법은 주로 編戶 파악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호구총수』에는 유·노년층 및 부녀자의 상당수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호구총수』의 가구당 평균인구가 4.2명이라는 것에서 반증되며 따라서 이 수치는 주로 男女壯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호구조사의 주요목적이 軍役賦課였음을 감안할 때 남자인구의 상당부분이 군역 기피를 위해 누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호구총수』에는 漢城과 같은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가구 자체가 조사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에 근거하여 김두섭(1991)은 『호구총수』에 등재된

인구수의 완전성을 41~43%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이론에 입각한 방법을 사용하여 『호구총수』의 호구수를 다시 계산해낼 필요가 있다. 사회학계에서는 권태환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몇 편의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중 김두섭의 추정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김두섭의 방법은 漏戶·漏口의 위험이 가장 적은 한성부 가구수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인구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1925년 국제조사결과를 추정지표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이 방법은 첫째, 『戶口總數』의 한성 가구수 43,929는 정확히 파악된 것이며; 둘째, 1789년 한성의 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1925년의 국제조사결과⁴⁾와 동일한 5.32명이고; 셋째, 1789년 한성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율이 1925년 국제조사결과와 동일한 1.30%라는 가정하에, 『호구총수』에 나타난 한성가구수 43,929에 1925년의 평균가구원수 5.32를 곱하여 한성의 인구를 구하고, 이를 다시 1925년 경성인구의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율인 1.30%로 나누어 1789년의 전국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한 전국인구 추정치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가구수	전국평균 가구원수	인구수
한성부	43,929	$\times 5.32 \rightarrow$	233,702(1.3%)
			$\downarrow \div 0.013$
전국	3,379,154	$\leftarrow \div 5.32$	17,977,098(100.0%)

그림 1. 1789년 전국 인구 추정

위의 추정치 17,977,098명은 같은 논문에 실린 김두섭의 『大丘帳籍』 연평구조를 이용한 추정치 17,202,496명과 비슷한 수치이며, 권태환·신용하(1977)에 의해 계산된 전국인구 추정치인 17,285,000명, 18,296,000명과도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이 수치는 1925년의 전국인구수 19,522,945명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데, 이

차이는 우리나라가 1920년대까지는 高出産과 高死亡에 의해 인구증가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었던 인구변천 제 1 단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정치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위의 추정치에 의한 『戶口總數』 가구수의 신뢰도는 51.87%로 나타난다.⁵⁾ 따라서 당시의 경기도 인구는 『호구총수』의 가구수를 『호구총수』 가구수의 신뢰도인 51.87%로 나누어 실제가구수를 구하고 여기에 1925년의 가구당 인구 5.32를 곱하여 재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호구총수』 경기도 가구수의 신뢰도가 전국 가구수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해 지는데 당시 호구조사의 신뢰도는 한성부에서 거리가 먼 지방일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이 常例이므로 실제 경기도 호구수의 신뢰도는 전국의 그것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 사용한 방법으로 경기도 가구수 및 그의 신뢰도를 계산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가구수	경기도평균 가구원수	인구수
한성부	43,929	$\times 5.16 \rightarrow$	226,674(16.97%)*
			$\downarrow \div 0.1697$
경기도	258,863	$\leftarrow \div 5.16$	1,335,734(100.0%)

그림 2. 1789년 경기도 인구 추정

* 1925년 경성부 인구의 경기도 인구 구성비율
∴ 「호구총수」 경기도 가구수의 완전성
= 203,089/258,863 × 100 = 78.45%

위의 계산에 의하면 경기도 가구수의 신뢰도는 78.45%로 전국의 그것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1789년 경기도의 추정인구는 『호구총수』 각 面의 가구수를 0.7845로 나눈 후 여기에 1925년의 경기도 평균 가구원수인 5.16을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재구성된 경기도내 행정중심지의 도회부 인구를 표 1로 정리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경기도의 행정 중심지 중 인구 10,000명 이상의 도회는 한성부, 개성부 등 2곳, 5,000명 이상의 도회는 강화, 광주, 양주, 교동 등 4곳, 3,000명 이상의 도회는 여주, 파

표 1. 京畿地方 行政中心地의 都會部 人口規模 (1790년경)

地方名	都會部	戶口(P)	推定人口*
한성	京中五部	43,929	227,000*
개성	東·西·南·北部	6,045	40,000
강화	府內面	1,519	10,000
광주	城內面東·北東面· 細村面	1,441	9,500
수원	文殊堂面	670	4,400
여주	州內面	684	4,500
양주	邑內面	869	5,700
파주	白石面	640	4,200
이천	邑內面	491	3,200
부평	邑內面	242	1,600
남양	蔭德里面	444	2,900
인천	府內面	252	1,700
장단	邑內面·眞縣內面	681	4,500
양근	邑內面	552	3,600
안산	郡內面	597	3,900
안성	邑內東里面·邑內西 里面	742	4,900
고양	沙里垈面	646	4,200
풍덕	郡中面	589	3,900
삭녕	邑內面	493	3,200
마천	郡內面	271	1,800
진위	縣內面	298	2,000
양천	縣內面	142	900
용인	邑內面	268	1,800
김포	郡內面	312	2,100
영평	縣內面	381	2,500
지평	縣內面	488	3,200
음죽	縣內面	224	1,500
양지	邑內面	234	1,500
죽산	南部面	309	2,000
과천	縣內面	620	4,100
금천	縣內面	326	2,100
양성	邑內面	240	1,600
통진	府內面	369	2,400
포천	縣內面	440	2,900
적성	縣內面	128	800
교하	縣內面	355	2,300
가평	郡內面	481	3,200
연천	縣內面	326	2,100
교동	南面	789	5,200

* 추정인구 = $P/0.7845 \times 5.16$, 십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음. P: 호구총수의 호구수

* 한성부의 가구수는 정확히 파악되었다고 전제하였으므로 0.7845로 나누지 않았다.

주, 안성 등 14곳으로 나타났다. 3,000명 이상의 인구 거주 지역을 도회로 규정할 경우 경기도는 20개의 행정도회가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타의 행정중심지들은 도회라고 할 정도의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적용한 도회기준 인구 3,000명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Rozman(1973, p. 60)은 중국과 일본의 전산업 도시인구 계산에 3,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18세기 영국의 도시에 관한 연구에서 Corfield(1982, p. 6)는 도시(town)와 농촌(country)간의 기준을 거주자 2,5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그는 인구가 넓은 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던 당시 영국의 상황에서 2,500인 이상의 지역은 독특한 지역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2는 인구규모에 따라 도회를 4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도회인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경기지방의 인구 중 27.63%가 도회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100,000명이 넘는 높은 계층에 속한 도회는 한성부 한 곳 뿐이며, 10,000명이 넘는 지역도 개성부 외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개의 도회들은 인구 3,000~10,000명 규모의 3,4등급 도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도회인구의 64.42%가 한성부에만 집중하고 있어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2등급 도회인 개성부 한 곳에도 11.30%의 인구가 집중해 있어 당시 경기지방은 한성과 개성 중심의 지역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도시적 활동

도시는 촌락과 인구수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人口構成面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데, 특히 職業構成은 그 도시의 都市의 活動을 알아보는 지표가 된다. 대개 도시거주인구는 상업,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非農業的 직업에 종사한다(Carter, 1990). 이는 조선의 도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음에 거주한 양반의 대부분은 행정을 관장하는 관리나 지주, 또는 교육자들로

표 2. 京畿地方 都會規模別 人口

등 급	인 구 규 모	도 회 수	도 회 인 구	도회인구/ 경기지방인구*	도회인구/ 경기지방 도회인구
1	100,000 이상	1	226,674	17.80 %	64.42 %
2	10,000 ~	1	39,761	3.12	11.30
3	5,000 ~	4	30,375	2.39	8.63
4	3,000 ~	14	55,081	4.33	15.65
계		20	351,891	27.63 %	100.00 %

* 경기지방 전체인구=1,046,865(159,160÷0.7845×5.16)+226,674(43,929×5.16)=1,273,539명

표 3. 各 郡別 職業構成

(단위 : %)

區分	官公吏	兩 班	儒 生	商 業	農 業	漁 業	工 業	績 業	雜 役	其 他	無 職	計
①	3.74	2.12	0.34	24.41	15.43	0.15	5.91	0.11	17.54	7.24	23.01	100.00
②	0.55	1.22	0.60	7.95	84.17	0.90	0.83	0.01	2.07	1.64	0.06	100.00
③	0.58	0.42	0.52	5.74	84.74	1.75	0.68	0.01	3.66	1.46	0.44	100.00
④	0.64	0.31	0.42	4.12	90.52	0.42	0.61	0.01	1.39	1.36	0.20	100.00
計	1.17	1.02	0.49	9.73	72.75	0.88	1.69	0.03	5.21	2.58	4.45	100.00

자료 :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0)에서 제작성

* 직업별 총인구를 기준으로 ① 50,000명 이상, ② 10,000~49,999명, ③ 5,000~9,999명, ④ 1~4,999명의 4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에 포함된 군은 다음과 같다.

① : 한성

② : 수원, 광주, 강화, 개성, 장단, 양주, 여주, 양평

③ : 용인, 남양, 안성, 죽산, 인천, 풍덕, 파주, 고양, 가평, 포천, 이천

④ : 시흥, 과천, 양지, 진위, 안산, 양성, 부평, 양천, 김포, 통진, 교동, 교하, 연천, 마진, 적성, 삭령, 영평, 음죽

서 文化的 傳統을 수호하는 주체였으며 이 밖에도 衙前, 商人, 匠人, 公·私奴婢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였으나 순수한 농민은 드물었다.

표 3은 1910년 경기도 각 군의 직업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표는 郡內 시가지 뿐만 아니라 군내 전 농촌 지역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관리나 상공업 종사자들이 읍내에 거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도회규모별로 대강의 도시적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후기의 도시적 활동을 주도한 산업은 상업이었다. 상업은 한성부의 경우 24.41%로 인구구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나며, 지방도회의 경우에도 농업종사자를 제외하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규모가 큰 지방도회일수록 상업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17세기 후반기부터는 한성부를 비롯한 주요 도회의 근교에 商業的 農業이 발달하면

서 近郊의 농민들도 半商人化되었다. 즉, 茶山 정약용은 『經世遺表』에서 “경성 및 큰 읍의 주변에서는 파, 마늘, 배추, 참외밭 十畝의 땅에서 수만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⁶⁾고 기록하고 있어 이미 도회주변농민들이 순수한 농업에만 종사하지 않고 상업작물을 재배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 전기의 官廳手工業은 중앙중심적으로 영위되어 한성의 경우 甲匠, 冶匠을 비롯한 129종의 京工匠 2,795명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지방도회의 경우 각 읍에 많게는 10명, 적게는 4명 내외의 外工匠이 배치될 따름이었으며,⁷⁾ 이들 외공장의 경우 일부 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을 兼業하면서 일정한 기간만 官役に 종사하였기 때문에 지방도회의 수공업은 매우 저급한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장제 수공업도 16세기에 접어들어

대부분의 官匠들이 관영수공업체에서 이탈하면서 私匠化 되어 갔으며 상업을 통해 축적된 자본이 생산부문에 투자되면서(강만길, 1984)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여 공업적 활동도 도회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예로 안성의 유기공업과 광주, 여주 등의 도자기 공업은 상당수의 私匠을 수용하여 해당 지역의 도회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기타의 지방도회들에서는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방 각 읍의 공업종사자가 모두 평균 1%를 넘지 못했으며, 이 수치는 공업종사자가 모두 읍내의 시가지에 거주하였다 해도 지방 각 읍의 도회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 밖에 미분류된 직업(표 3의 기타)이 대도회로 갈수록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후기에도 대도회일수록 직업 구조가 다양화되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조선후기 도회에서는 고급관리, 교육자 등 지식인층을 형성한 兩班들과 도회화의 주역이었던 商人, 생산기술자인 匠人, 군인 및 하급관리 그리고, 최하층민이었던 公·私奴婢들이 주요 거주민을 형성하였으며, 이들이 近郊農業 발달로 상업적 성격을 띠게 된 농민들과 아울러 비농업적인 도시적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도회시설 및 형태

조선후기의 도회는 성곽의 유무에 따라 城廓都會와 非城廓都會로 구분된다. 이 두 유형의 도회들은 형태와 구조면에서 여러 차이점을 나타내지만 대체로 자연조건에 순응하는 도회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히 성곽도회의 경우 도회의 立地 자체가 지형에 따른 築城條件에 영향을 받으며 성곽은 시가지 경관의 평면적 확대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면형태는 대체로 集合·凝集形態를 띤다(김철수, 1985).⁸⁾

경기도의 경우 京畿灣에 면한 군현을 제외하면 북방 민족이나 왜구의 침입에 대한 우려가 적었기 때문에 성곽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山田正浩, 1979). 대동여지도를 보면 경기도에는 한성부와 4留守府, 그리고 교동 등 6개 지

역에만 邑城이 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곽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 성내의 도로형태는 성문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도로형태는 시가지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성곽은 도회의 내부구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도성내 시가지에는 관아, 객사, 감옥 등 도회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입지하여 일반농촌과는 다른 경관을 가지고 있었다.

비성곽도회의 형태 역시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주요 도회의 시가지 형태를 1910년대 지형도를 통해 추적해 보면 주로 하천이나 도로를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며, 교차하는 교통로가 많거나 수로변에 입지하는 경우 시가지 규모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3. 都會의 機能

1) 행정기능

조선의 정치구조에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中央集權體制의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국 초부터 조선 조정은 고려시대말까지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중앙정부에 대항했던 地方土豪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정치·군사·사회의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통치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지방행정체제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즉, 그 지역 토착세력의 강약에 따라 대·소가 결정되었던 고려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태종대에는 戶口와 田結의 수를 기준으로 지방행정구역이 定制化되었던 것이다.

경기도의 도회 중 행정기능이 가장 강조된 곳은 역시 수도인 漢城府였다. 한성부는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권력의 집중지로서 인구규모도 다른 도회들이 경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뿐만 아니라, 제도상으로도 중앙관제에 속해 있어 전국의 호적을 관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막중하였기 때문에 행정기능이 강화될 수 밖에 없었다. 한성부의 대민 실무기관으로 6房이 있었다.

이러한 對民行政機能은 지방도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령의 사무를 중앙의 6조를 축조시킨 吏·戶·禮·兵·刑·工의 6房이 나누어 담당하였다. 이들 6방의 사무분담은 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이방은 人事·庶務, 호방은 戶口·會計, 예방은 祭祀·禮節을 담당하였으며, 병방은 軍事 및 兵船의 사무, 형방은 裁判·罪囚에 관한 사무, 그리고 공방은 營繕과 工匠에 관한 사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그 밖에 각 읍에는 捕軍, 使令, 通引 등 다수의 하급관리들이 있었는데, 이들 관리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는 인구는 지방행정중심지의 총 인구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의 지방제도는 牧·府·郡·縣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각 읍에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邑格에 따라 품계가 다른 수령이 파견되었다. 이는 지방 각 읍에 따라 요구되는 수령의 능력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이들 중 고급관리가 배치되었던 군현의 중심지는 대부분 대읍으로 성장하였다. 왜냐하면 수령의 품계가 높을수록 관할구역의 범위가 넓고 구역내의 戶口數와 田結數도 많았으며 교육 기관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기능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최영준, 1990).

그러나, 이들 각 읍에 배치된 목사, 부사, 군수 등 수령의 품계는 차등이 있었지만 행정상으로는 모두 병렬적으로 관찰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각 군현의 首長은 행정관일 뿐

아니라 군사지휘관, 사법관, 교육행정관, 권농관 등 통치상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각 읍은 上位 군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성장조건만 충분하다면 어떤 읍이나 규모는 작을지라도 도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이러한 並列의 行政組織은 경기도의 각 읍들이 균등하게 도회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었다고 사료된다.

그 밖에 군사행정기구의 하나로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찰방역이 있다. 찰방역은 수령인 찰방 아래 이·호·예·병·형·공방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능상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업기능이 더해질 경우 작은 도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예로 양주의 盧原驛, 광주의 良才驛을 들 수 있다. 양재역은 한성-경상도를 잇는 嶺南大路상에 위치한 교통상의 요지로 양재도 찰방이 배치되었던 곳이다. 이 곳은 『萬機要覽』에 경기도의 주요 장시로 기록되어 있는 沙平場이 입지하여 교통기능을 갖춘 주목촌 겸 상업취락으로 성장하였다.⁹⁾ 노원역도 한성에서 元山, 威興으로 향하는 北路상의 요지에 위치한 곳으로 後述할 樓院店 상인과 연결되어 교통상업도회로 발전하였다. 이들의 인구를 『호구총수』에서 살펴보면 양재(광주군 인주면)는 4,755명, 누원(양주군 해당면+노원면)은 5,617명으로 나타나¹⁰⁾ 이미 작은 도회로 성장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제도상으로는 중앙관제에 속해 있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경기도의 지방행정조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留守府이다. 유수부에는 京官職에 속하는 정 2품(수원·광주), 종 2품(개성·강화)의 고급관리가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고, 經歷(종 4품, 개성·강화), 判官(종 5품, 수원·광주) 등의 관리가 6방관리를 통솔하여 실제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유수부는 한성부와 마찬가지로 경기관찰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지역으로서 각 지방의 특수성을 다소 고려하기는 했으나 행정기구를 한성부의 예에 따라 편성하였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많았고 그에 소속된 관원의 수도 적지 않았다. 또한 관할구역의

표 4. 朝鮮後期 京畿地方의 郡縣分等

郡縣分等	官 員	品 階	地 方 名
유수부	유 수	정 2 품	수원, 광주
	유 수	종 2 품	개성, 강화
목	목 사	정 3 품	파주, 양주, 여주
도호부	도호부사	종 3 품	교동, 장단, 죽산, 이천, 남양, 인천, 동진, 부평
군	군 수	종 4 품	고양, 교하, 가평, 영평, 삭녕, 마진, 양근, 안산, 안성, 김포
현	현 령	종 5 품	진위, 용인, 양천
	현 감	종 6 품	포천, 적성, 연천, 지평, 읍성, 양지, 과천, 양성, 시흥

자료: 『大東地志』

* 수원부,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의 유수는 地方官이 아닌 京官職 관원임.

범위가 넓었을 뿐 아니라 호구 및 전결수도 타 군현에 비해 많았다. 그러므로 우수부는 도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다.

2) 商業機能

조선후기 경기도의 도회상업 발달을 주도한 곳은 역시 수도인 한성이었다. 한성은 금난전권을 소유한 시전들이 상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7세기 초엽 이후 등장한 亂塵들과 18세기에 들어 대폭 증가한 시전들이 도회상업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그에 더하여 정조 15년(1791년)에 辛亥通共이 반포되었는데, 이는 六矣塵을 제외한 일반시전의 금난전권을 폐기한 것으로 당시 이미 일반화되어 있던 난전에 合法性을 부여하여 도회상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종전에는 수도 한성 및 개성과 같은 시전설치 지역에만 상설시장이 한정적으로 분포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교통요지마다 자연발생적으로 장시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서울 근방의 상업취락들은 서울의 난전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常設市場化 하였고, 난전에 의한 서울의 도회화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대표적인 취락으로 松坡와 樓院이 있다.

송파는 송파장, 三田渡, 石村 등의 성장으로 이루어진 상업취락이다. 송파장은 1740년을 전후하여 서울의 시전체제에 대항해서 경기도 광주 漢江邊에 설립된 장시였는데(김영호, 1968) 이미 18세기 末에는 상설시장화하였고 한성의 私商들과 결탁하여 3남지방과 동북지방에서 오는 상인을 유인하고 그 상품을 매점하는 대규모 私商都賈를 전개하였던 곳이다. 그리고 누원은 서울 북쪽 도봉산 기슭에 있었는데 서울 중심부와 가까우면서 함경도지방에서 오는 魚物과 布物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일찍부터 서울 주변의 상업 중심지로 발달하고 있었던 곳이다. 이들의 인구규모를 호구총수에서 살펴보면 송파(광주군 중대면)는 4,775명, 누원(양주군 해동촌면+노원면)은 5,617명으로¹¹⁾ 나타나 당시 위성상업도회의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이 밖에도 서강, 마포·용산의 ‘아랫강 여각’

과, 서빙고, 두모포, 뚝섬의 ‘윗강 여각’이 있었다. 도성으로부터 약 10리 정도 벗어난 한강변에 위치한 이들은 행정구역상으로는 한성부내에 속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삼림벌채, 지목변경 등이 규제되는 성저 10리지역을 사이에 두고 있었으므로 경관상으로는 한성과 구분된 상업취락이었다. 이들은 倉庫, 馬房 등의 시설을 갖춘 상업취락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들의 인구를 『戶口總數』에서 살펴보면 서강(서부 서강방)은 6,239명이었고, 마포·용산 지역(용산방)은 14,915명이었다. 또한 서빙고 일대(남부 둔지방)는 3,589명이었고, 두모포와 뚝섬은 각각 4,484명, 1,985명을 기록하고 있어 뚝섬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의 위성상업도회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손정목, 1977).

전산업시대 경기도의 도회발전상을 상업과 관련시켜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 예로 開城과 水原이 있다. 특히, 개성은 고려시대 때부터 市塵이 개설되었던 곳으로 서울의 육의전에 비교할 만한 四大塵이 있었으며 都賈商業과 외국무역을 통해 집적된 開城商人資本이 18세기 경부터 人蔘栽培와 紅蔘加工같은 생산부문으로까지 침투하는 등 전국제일의 상업도회로 성장하였다(강만길, 1972).

前述한 한성, 개성, 수원 등 시전을 중심으로 상업기능이 전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지방의 정치·경제 중심지인 牧·府·郡·縣 등의 城邑市를 중심으로 鄕市가 발달해 왔으며 조선후기 들어 화폐가 널리 보급되면서 장시는 더욱 활기를 띠어 농민생활의 구심점을 이루는 중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이덕성, 1976). 그러나, 지방의 장시는 대부분 5일마다 한번씩 開市하는 정기시장이었으므로 취락으로서의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설시장화하지 않은 경우 도회로 발전하기는 용이하지 않았고 가까운 도회의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19세기 경기도의 장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로 『임원십육지』와 『대동지지』가 있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5개 이상의 장시가 있었던 곳은 광주, 수원, 파주, 여주, 양주, 장단, 양근, 고양 등 8개군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지역에서도 수는

적었지만 장시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조선 시대에는 農業生産力의 꾸준한 발전으로 거주영역이 확대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인구가 분포되어 있었고, 조선후기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정기시장은 도회의 상업기능을 이들 분산된 농촌에까지 전달하는 매개가 되었다(정승모, 1992). 즉, 경기도의 상업기능은 도회지역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해있지 않고 일정지역의 수요를 집중시켜주는 정기시장을 매개로 하여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다. 장시의 이용자인 농민은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로 장시에 나가게 되고 따라서 장이 열리는 기간동안만은 그들 농민들도 商業的 機能(都市的 活動)을 수행하는 半都會民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경기지역의 주요장시를 만기요람에서 살펴보면 교하 공릉장, 광주 사평장, 송파장, 안성 읍내장을 들고 있다. 이 중 송파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설시장화하였으며 택리지에 안성은 “貨物이 모여 쌓이고 工匠과 장사꾼이 모여 都會로 성장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미 상업도회로서 성장했음을 시사해 준다. 이밖에 용인의 김량장에는 보부상 조직의 부분부인 次任房이 있었고 포천의 송우리장도 農牛, 布 등의 북부지방 산물들이 누원으로 오기 전에 거쳐야 하는 북쪽 관문에 위치하여 都賈商業으로 발달하였다. 그리고, 음죽의 장호원장이 유명하였는데, 이들 大場은 읍내에 위치하거나 중심지에서 10리 안팎의 지역에 위치하였다.

상설시장이나 큰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도 지역 내에서 인접하고 있는 場들이 각각의 개시일을 달리하여 하나의 시장권을 형성함으로써 상설시장화한 지역이 있다. 4개 이상의 장시가 모여 상설시장권을 형성한 지역을 『임원십육지』와 『대동지지』를 통해 조사해 보면 수원, 광주, 여주, 양주, 파주, 양근, 장단, 지평, 삭녕 등 9개 지역이 있다. 이들은 인접 군현의 상업기능 수행을 담당하여 도내의 도회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3) 衛戍機能

조선전기의 군사제도는 국경지방의 방어에 주

력하여 한·만국경에는 기·보병의 주력을, 그리고 남해안에는 수군의 주력을 배치하는 行城關防體制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왜·호란 당시 내륙 깊숙히 침투한 적군을 방어하는데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이 팔의 난 등으로 인해 한성 중심의 수도권 방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陪都의 기능이 강조된 유수부와 아울러 몇 개의 군영들이 설치되었고 조선 전기의 진관제도가 강화되어 경기도 각 읍의 위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다. 경기도 각 읍에는 總理營, 守禦營, 管理營, 鎮撫營, 統禦營, 兵馬防營, 水軍防營 등의 군영이 각각 유수부, 광주부, 개성부, 강화부, 교동부, 파주목, 영종진에 설치되었는데 이들 군영이 설치된 곳은 성벽, 무기고, 화약고 등이 설치되어 일반 농촌지역과는 경관이 상이했을 뿐 아니라 상주하는 군사의 수가 많아 그 지역의 도회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上記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군영은 4도인 유수부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유수부의 군사적인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유수부는 兩亂 및 수차의 內亂을 겪으면서 점차 陪都로 변모되어 王都의 호위기능을 주업무로 하는 군사적 기능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유수관을 경관직에 編制한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이의 실제 이유도 군사적·방위적 이해관계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이준희, 1984). 이들 도회들은 한성부와 유사한 행정조직을 갖추어 주재하는 관원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군병의 수도 많아 군사도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전술한 영종진을 비롯하여 경기도에는 17개의 鎭과 6개의 堡가 있었다.¹²⁾ 이들 獨鎭에는 종 3품의 첨절제사, 종 4품의 동첨절제사, 만호 등이 파견되었고, 일정한 수의 군병이 주둔하였을 뿐 아니라 무기고, 화약고 등이 설치되어 일반 농촌과는 달리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위수기능 취락을 이루었다. 『대동지지』는 이들 중 모규가 큰 곳의 전답과 민호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 대단한 모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영종진의 경우 民戶와 人口數가 각각 1,039戶와 3,320人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수치가 1700년대부터 1800

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¹³⁾ 위수기능도회로 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우기 영종진에는 고급관리인 중 2품防禦使가 파견되어 위수도회로서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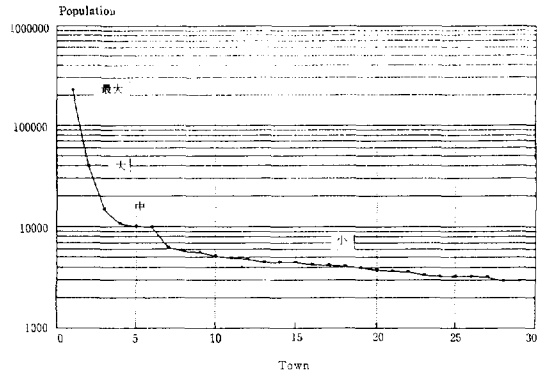
이 밖에 지방군사제도로는 세조 2년(1457)에 정비된 진관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국가방어체제의 근간이 되는 지방군사제도로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의 主鎭 아래 몇개의 巨鎭을 두고 이거진의 僉節制使가 諸鎭을 주관하며, 제진의 同僉節制使, 節制都尉 등이 그 진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군사제도이다.¹⁴⁾ 이로써 지방의 각 읍들은 자체방위기능을 가질 수 있었다.

경기도의 鎭管을 대동지지를 통해 살펴보면 양주, 장단, 여주, 남양의 巨鎭 아래 고양을 비롯한 27개의 諸鎭이 편성되어 있어 道內의 모든 읍이 진으로 편성되어 군사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지역에 군사가 常住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평시에는 각 진관에 소속되는 각종의 군사가 非番인 체로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단지 潛在軍事力을 이루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주진 또는 거진이 설치된 읍은 그 방위구내의 訓練의 場이 되었고, 방위구내의 장정이 定期的으로 중심읍에 集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정수의 군관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도회의 도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4. 京畿地方의 都會分布와 階層

1) 도회의 분포

경기도는 한성부와 4유수부 등 상급행정중심지가 자리하고 있던 곳이며, 한강수운을 비롯한 조선의 'X'자형 간선도로망의 중심에 위치한 도로교통의 요지이다. 한성과 개성 등에는 상설시장인 시전이 위치하였고 지방 각 읍에도 상설시장화한 정기 시장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한 군영들과 진관들이 분포하였다. 위와 같은 요인으로 보아 경기도는 他道보다 도회로의 발전가능성이 더욱 많은 곳이었다.



1. 한성 - 最大	7. 서강	15. 장단	23. 영종
2. 개성 - 大	8. 양주	16. 고양	24. 삭녕
3. 마포·용산	9. 누원	17. 파주	25. 이천
4. 수원	10. 교동	18. 과천	26. 지평
5. 강화	11. 안성	19. 안산	27. 가평
6. 광주	12. 송파	20. 양재	28. 남양
	13. 여주	21. 양근	29. 포천
	14. 두모포	22. 서빙고	

그림 3. 人口規模別 都會順位

도회의 정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인구라고 하고 도회 기준을 2장에서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인구 3,000명 이상의 중심지라고 하면 비농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상업·군사상의 중심지인 경기도내의 도회부는 모두 29 곳이다. 이를 도회규모대로 서열화하여 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¹⁵⁾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기도의 도회는 인구규모에 따라 대략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집단에 속한 한성부는 인구 220,000여명의 대도회로 심한 인구집중을 나타낸다. 이는 한성부가 국내 상공업의 중심이며,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이라는 인구 흡입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2집단에 속하는 개성부도 3집단과 많은 인구 차이를 나타낸다. 개성의 경우도 四大塵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인구흡입요인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고려왕조의 수도였다는 역사적 전통이 관성으로 남아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 밖에 제 3집단에는 江華, 廣州, 水原

표 5. 各 邑別 都會狀況

구 분	수령의 품계	읍 수	도 회 수
한 성		1	1
유 수 부	정·종 2 품	4	4
목	정 3 품	3	3
도 호 부	종 3 품	8	4
군	종 4 품	10	6
현	종 5·6 품	12	3
상업중심지			7
군사중심지			1

등의 유수부와 마포·용산의 상업중심지가 속해 있으며, 4집단에는 양주를 비롯한 23개의 중심지가 집중 분포하고 있다.

다음 표 5는 위의 도회들을 행정부의 순위대로 분류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보면 4개의 유수부와 3개의 목 등 당상관인 정 3품관 이상이 수령으로 있는 7개의 중심지가 모두 도회로 성장하였으며 또한 도회 순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前産業都市에 있어서 행정적 요인이 도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경우 목·부·군·현 등의 읍격에 따라 田丁의 수가 조정되었으므로(임승목, 1990) 읍의 등급이 높을수록 도회로의 발전이 용이하였다. 이는 읍급이 낮은 현의 경우 도회로 발전한 경우가 적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위의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도회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망인 'X'자형 도로망 중 서북—동남 축을 따라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통로가 조선후기 도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음을 지적해준다.

지방도회가 교통로 주변에서 더욱 발달하는 이유는 首位都會의 규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즉, 수위도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도회내에서 소비할 재화의 양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재화의 흐름이 교통로를 따라 증가하면, 재화의 이동과정에서 상업과 같은 비농업적인 도시적 활동이 지방도회에서 증가하게 되어 인구의 흡입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

이다. 또한 교통로 중 한강 주변에 도회가 많아 당시 수운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수운은 교통의 편리함 뿐 아니라 灌溉의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Chang, 1961) 도회가 입지하기 좋은 장소가 된다. 이는 경기도의 도회 중 서북—동남 방향의 교통로에서 다소 떨어진 가평과 삭녕이 모두 한강, 임진강 등의 수로변에 위치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도회가 특히 물자의 흐름이 많았던 서북—동남 교통로 주변에 위치한다는 것은 지역간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도회계층

도시계층의 분석기준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다. 조선 후기 실학의 거두인 다산 정약용은 각 군현의 民戶의 수와 田結數를 합한 기준으로¹⁶⁾ 전국의 군현을 8등급으로 구분하여 인구와 함께 그 지방의 경제력을 분석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최영준(1990)은 조선후기의 전산업도시들을 진결수, 인구수 뿐만 아니라 수령의 품계, 교통망의 구조, 역사적 전통 등 도시발달의 배경이 되는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였다. Slatter(1985)는 중세 Staffordshire의 도시계층연구에서 지방별 세금할당액과 부의 분배정도를 나타내는 납세자수를 계층분석지표로 사용하였으며, Carter(1956)는 상업기능, 사회기능, 행정기능 등의 도시기능을 도시등급 설정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조선후기 경기도의 도회계층은 위에 살펴본 여러 방법들을 토대로 하여 복원할 수 있다. 그러나, 계층분석 방법이 복잡할수록 과거의 도회에 적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며 또한 전산업도시의 계층복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불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 도회가 수행하고 있는 도회기능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한 후 각 기능의 소유정도를 중심도회의 인구수와 함께 계층분석의 지표로 삼아 도회계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 도회의 주요 기능은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 상업, 위수기능의 3가지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행정기능—전산업도시의 대부분이 중앙집권국가로서의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도시계층은 행정계층과 수평을 이루었으며 (Chang, 1961) 조선의 경우도 지방의 읍격에 따라 관아의 노비, 衙前의 수에 차등이 있었다.

(2) 상업기능—상업기능은 도회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장의 존재는 도회지위 결정의 결정적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3) 위수기능—군영이 설치되었던 지역은 훈련장, 무기고, 화약고 등의 경관이 농촌과 달랐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의 군인이 집중하여 도회로의 발전가능성이 많은 곳이었다. 지방 각 읍은 진관제도를 통해 지방관이 겸임하는 군사적으로 인해 지방도회들간에 계층이 성립될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도회기능들을 세분하여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기능(A) : 유수부의 長은 2품 중앙관 이므로 A₁급에 놓고 정 3품인 목사는 조정의 堂上官에 해당되는 반면 종 3품인 도호부사는 당하관이므로 각각 A₂와 A₃로 구분하였다. 종 4품인 군수는 A₄, 종 5·6품인 현령, 현감은 함께 A₅로 구분하였다.

A : 한성

A₁ : 개성, 광주, 수원, 강화

A₂ : 파주, 양주, 여주

A₃ : 교동, 장단, 죽산, 이천, 남양, 인천, 통진, 부평 등 8개 지역

A₄ : 고양, 교하, 가평, 영평, 삭녕, 마전, 양근, 안산, 안성, 김포 등 10개 지역

A₅ : 진위, 용인, 양천, 포천, 적성, 연천, 지평, 음죽, 양지, 파천, 양성, 시흥 등 12개 지역

(2) 상업기능(B) :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을 지표로 하였다. 시진 및 장시가 상설화하여 촌락의 지속성이 강한 지역은 B 등급에, 정기시장이지만 규모가 크거나 주변 장시와 연결되어

상설시장권을 형성한 경우는 B₁으로 구분하였다.

B : 한성, 개성, 수원, 송파, 누원, 서강, 마포·용산, 서빙고, 두모포, 독섬

B₁ : 광주, 파주, 안성, 용인, 포천, 음죽, 삭녕, 양주, 여주, 장단, 지평, 양근, 수원, 양재

(3) 위수기능(C) : 군영이 설치되었던 곳은 C, 諸鎭을 주관하는 거진과 첨절제사·동첨절제사가 파견된 獨鎭 중 규모가 큰 것은 C₁으로 구분하였다. 제진의 경우 모든 읍에 군사가 상주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수기능도회에서 제외하였다.

C : 한성, 개성, 광주, 수원, 강화, 파주, 교동, 영종

C₁ : 여주, 양주, 남양, 장단, 영종, 덕적, 덕포, 화양, 장봉, 주문

표 6. 京畿地方 都會階層

階層	人口規模	保有機能	都 會
I	最大	A B C D	한성
II	大	A ₁ BC	개성
III	中	A ₁ B C A ₁ B ₁ C A ₁ C B D	수원 광주 강화 마포·용산
IV	小	A ₂ B ₁ C ₁ D A ₂ B ₁ C A ₂ B ₁ C ₁ A ₃ B ₁ C ₁	여주 파주 양주 장단
V	小	A ₄ B ₁ D A ₄ B ₁ A ₅ B ₁ A ₁ C A ₃ C A ₃ C ₁	양근, 삭녕 안성 지평, 포천 영종 교동 남양
VI	小	A ₄ D B D A ₃ A ₄ A ₅ B B ₁	가평 송파, 서강, 서빙고, 두모포 이천 고양, 안산 파천 누원 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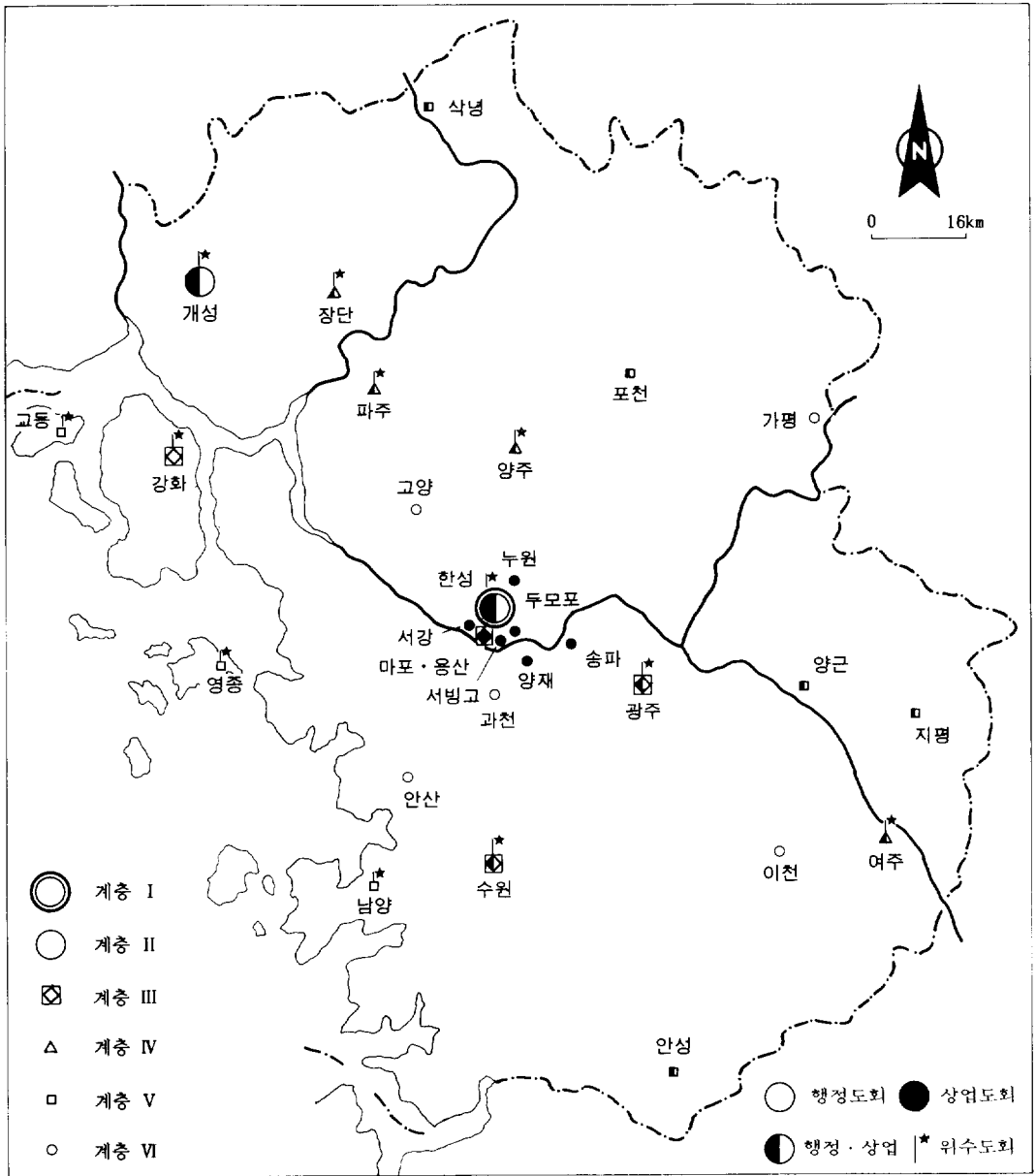


그림 4. 京畿地方 都會階層

경기도 내에 위에 언급한 도회 기능 중 한가지의 기능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모두 52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보통 2~4개 도로의 결절점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수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는데, 조선 시대의 경우 수운의 영향력은 도로교통의 그것

보다 막중한 것이어서 상당한 양의 재화가 수로를 통하여 운반되었기 때문에 수운의 소유여부는 도회의 상업기능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전술한 52개 지역 중 수운의 이점을 보유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D : 수운의 이점을 보유한 지역—한성, 김포,

양천, 양근, 여주, 가평, 삭녕, 서강, 마포·용산, 서빙고, 두모포, 송파, 뚝섬 위에 열거한 도회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심읍의 인구가 3,000명을 넘지 않는 지역을 도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기도의 도회계층은 중심지의 인구가 3,000명을 넘는 지역을 선정하여 4개의 인구집단으로 나눈 다음 각 집단 내에서 도회기능의 소유정도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¹⁷⁾ 이같은 방법에 따라 선정된 경기지역의 도회수는 29개이고, 이들의 도회계층을 파악하면 다음 표 6과 같다(그림 4).

계층별 도회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표 7을 작성하였다. 이 표는 1910년 경기도 행정 도회의 비농업 인구비율과 미분류된 직업(표 7의 기타) 종사자의 비율을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군내 전체 인구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지만 비농업 인구는 주로 시가지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도회부의 대략적인 상황을 짐작케 해 준다.

먼저 비농업 인구 비율을 보면 계층 I인 한성부에서는 84.57%이고 아래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계층간 도시화율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계층 IV-V의 도회는 등급별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개별 도회들은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직업 종사자의 비율도 계층 I 도회인 한성에서는 7.24%이지만 낮은 계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치가 떨어져 대도회일수록 직업의 다양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직업 종사자 비율 역시 계층 IV-V 도회들에서는 많은 편차를 보이면서 뒤섞여 있다. 이같은 사실은 계층 IV-V에 속한 도회들은 각 도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면에서는 上·下의 계층을 이루고 있지만 전체적인 도회의 모습에서는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계층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층 I 도회—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성이 여기에 속한다. 국가최고의 행정기관이 집중해 있으며 시전을 비롯한 각종 상업 시설이 위치한 국내 최대의 상업중심지이자 공업중심지로 비농업 인구 비율이 80%에 달하였다. 인구는 약 220,000여명으로 극심한 인구집중현상을 나타낸다.

계층 II 도회—개성부가 여기에 속한다. 유수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四大廳을 비롯한 상업 시설은 한성부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고려왕조의 수도였다는 역사적 관성을 지닌 도회이다. 인구는 약 40,000여명이다.

계층 III 도회—수원, 강화, 광주와 서울의 위성상업도회로 성장한 마포·용산이 여기에 속한다. 수원, 강화, 광주는 2품관이 수령을 맡는 유수부 설치지역으로 18세기 후반 한성의 陪都로서 정비되었고 군영이 설치되어 군사기능이 강조되었다. 마포와 용산은 호남의 미곡과 서해 해산물의 집산지로 한강 수운을 이용한 상업의 발달로 인해 도회로 성장하였다. 중심도회의 인구는 약 10,000여명 내외이다.

표 7. 京畿地方 郡의 職業別 人口 比率 (단위 : %)

계층	지역	비농업인구율		기타직업 종사자율	
		비율	소계	비율	소계
I	한성	84.57	84.57	7.24	7.24
II	개성	41.06	41.06	4.04	4.04
III	수원	12.66	21.18	—	2.67
	강화	23.08		3.16	
	광주	7.92		2.18	
IV	파주	11.80	10.24	0.95	1.27
	장단	12.25		2.45	
	양주	9.07		0.71	
	여주	7.85		0.97	
V	남양	10.02	9.62	4.40	1.48
	안성	13.42		0.10	
	양근	10.29		0.04	
	지평				
	삭녕	3.50		—	
	포천	8.21		0.24	
	교동	12.28		4.09	
VI	안산	9.90	11.51	1.37	0.49
	가평	8.73		0.77	
	이천	6.62		0.22	
	고양	8.43		—	
	과천	23.89		0.08	

자료 : 朝鮮總督府統計年譜(1910)

계층Ⅳ 도회—여주, 파주, 장단, 양주가 여기에 속한다. 3품관이 수령을 맡고 있다. 중심읍의 인구는 5,000명 내외로 작은 편이지만 지역내 상업의 중심기능을 하는 大場이 도회상업기능을 수행하며 군영 및 거진이 설치된 위수기능 도회이기도 하다.

계층Ⅴ 도회—교동, 안성, 양근, 삭녕, 남양, 지평, 포천, 영종 등이다. 중심읍의 인구는 약 3,000명 내외로 행정기능 외에 상업기능이나, 위수기능을 보유하여 도회로 성장한 곳이다.

계층Ⅵ 도회—가평, 고양, 이천, 안산, 과천 등 지방도회와 송파, 서강, 서빙고, 두모포, 누원, 양재 등 서울 주변의 위성상업도회가 여기에 속한다. 중심읍의 인구는 약 3,000명 내외이다. 행정 혹은 상업의 한가지 도회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5. 結 論

조선후기 경기지역은 수도인 한성을 포함한 상급행정중심지가 자리하고 있던 곳이며 한강수운을 비롯한 'X'자형 간선도로망의 중심에 입지하여 재화와 정보, 기술의 유입이 他道에 비해 빠른 곳이었다. 행정기능상 지방 각 읍은 상위군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대도회에 설치된 市廛과 함께 경기 전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던 정기시장은 도회의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수도 방어를 위해 설치된 군영들도 비농업적인 도회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경기도는 他道보다 도회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었다.

조선후기의 도회는 수도 및 정관적인 유수가 수령으로 배치되었던 고급행정중심지를 제외하면 대개 3,000~5,000명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작은 도회였다. 도회민은 관리, 상인, 장인, 노비 등 非農民層이 주류를 이루었고, 시가지 부근의 농민들도 근교농업을 통해 半都會民化 하였다. 이 중에서 상인들이 도회화를 주도하였다. 시가지는 지형과 교통로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도회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정기능으

로 조선후기의 도회 대부분은 행정기능에 상업 혹은 위수기능이 첨가되어 도회로 성장한 경우가 많았다. 각 군현에 파견되는 행정관의 품계는 그 지방의 大小에 따라 조절되었는데 고급행정관이 파견된 지역은 그에 따르는 관원 및 田丁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도회로의 발전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경기도의 牧 이상 8개 지역이 모두 도회로 성장한 것으로 증명된다.

임진왜란 이후 발생한 이농현상은 상업기능에 의한 도회발달을 자극하였다. 도회상업기능은 서울, 개성 등지는 시전과 난전으로, 지방의 경우는 정기시장의 규모가 커져 상설시장화하거나 인근 장시와 연합하여 상설시장권을 형성하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업의 발달은 송파, 누원, 마포·용산 등 교통 요지에 입지한 상업도회의 탄생을 유도하였다.

경기지역은 兩亂과 이괄의 亂을 겪으면서 기존의 방어체제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陪都로서의 유수부 및 여러 군영들이 설치되었다. 1791년 광주의 유수부 승격으로 정비된 4유수부는 총리영을 비롯한 군영들이 배치되면서 위수기능이 더욱 강화되었고, 지방 각 읍은 진관제도가 정비, 강화되면서 거진이 설치된 지역의 도회화가 촉진되었다. 獨鎭 중에는 영종진이 순수한 위수기능 도회로 성장하였다.

경기도의 도회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망인 'X'자형 도로망 중 서북—동남축을 따라 분포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교통로가 도회발달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해준다. 특히 수로는 교통과 灌溉의 편리함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좋은 조건이 되었다.

경기도의 도회를 중심지의 인구규모와 도회기능의 소유 정도에 따라 계층화하면 6개로 나눌 수 있다. 계층Ⅰ인 한성은 국내 최대의 행정·상업·위수 중심지로 심한 인구집중현상을 나타낸다. 계층Ⅱ에는 고려 왕조의 수도라는 역사적 관성을 보유한 개성이 속해 있으며, 계층Ⅲ에는 수원, 강화, 광주 등의 유수부와 아울러 마포·용산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후기의 상업발전이 도회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계층Ⅳ-Ⅵ 도회는 인구수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도회기능의 소유 정도에 따라 행정·상업·위수기능의 중심지는 계층Ⅳ에, 행정기능에 상업 혹은 위수기능 중 한가지만 첨가된 곳은 계층Ⅴ에, 도회기능 중 한가지만 수행하는 곳은 계층Ⅵ에 배치되었다. 각 계층별 도회상황을 비농업인구와 기타직 종사자의 수로 살펴 본 결과 계층Ⅰ에서 계층Ⅳ까지는 도회화의 정도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지만 계층Ⅳ에서 계층Ⅵ까지는 전체적인 도회의 모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投稿 1994년 6월 8일)

註

- 1) 擇里志 八道總論 京畿條에 “安城 居畿湖海峽之間 貨物委輸 工賈走集 爲漢南都會然”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증환이 상공업으로 성장한 취락을 都會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이증환은 원주, 대구, 상주, 나주, 평양 등의 大邑을 都會, 大都會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우리나라는 1920년대까지 인구변천 제 1 단계에 속하였으며 개항 이전까지 인구의 급격한 사회 이동을 유발할 만한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호구총수의 인구를 19세기 중반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역사적으로 보아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도시의 구성요소를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으나 어느시대에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도시의 구성요소로 ① 시민, ② 활동(activity), ③ 토지와 시설(land and facility)을 들 수 있다. 남영우, 1985, 도시구조론, 범문사, 20-21.
- 4)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결과와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인구규모를 대표하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로 인정되고 있다. Tai Hwan Kwon, 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Seoul, 3-23.
- 5) $1,752,837(\text{호구총수 가구수}) \div 3,379,154(\text{추정 가구수}) \times 100 = 51.87\%$
- 6) 『經世遺表』 地官修制 田制 11 井田議 3. “京城內外 通邑大道 蕙田蒜田瓜田 十畝之地 算錢數萬”
- 7) 經國大典 工典 京工匠, 外工匠條.
- 8) 러시아 대장성의 『한국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한국의 도시들은……도시 전체나 그 일부가 돌로 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시골과 도시를 구별하게 한다……집들은 거의 간격이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국역한국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자료조사실, 177.
- 9) 『여지도서』에는 양재역의 위치를 在州西三十里, 『임원경제지』에는 사평장의 위치를 在州西三十里로 기록하고 있으며, 越智唯七의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에도 廣州郡 彥州面 新沙里, 驛三里, 良才里를 沙平里, 驛村 馬粥亓里, 良才洞으로 대조시키고 있다.
- 10) 양재와 누원의 인구규모는 『호구총수』에 나온 가구수를 0.7845로 나누고 경기도 가구당 평균인구인 5.16을 곱하여 얻은 수치이다.
- 11) 송과와 누원의 인구 규모는 호구총수에 나온 가구수를 0.7845로 나누고 경기도의 가구당 평균인구인 5.16을 곱하여 얻은 수치이다.
- 12) 『大東地志』 開城, 江華, 喬桐, 坡州, 楊根, 南陽, 仁川, 通津. 鎭堡. 개성에 2곳, 강화, 12곳, 교동, 2곳, 파주 2곳, 양근 1곳, 남양 1곳, 인천 2곳, 통진 1곳이 있었다.
- 13) 輿畿邑誌 永宗 戶口 850戶 人口 3,038
京畿邑誌 永宗 元戶 878戶
- 14) 침절제사는 목사·도호부사, 동침절제사는 도호부사·군수, 절제도위는 현령·현감에 해당한다.
- 15) 남양과 포천의 경우 인구수는 각각 2,900여명으로 3,000명에 미달하지만 조사 자체가 불완전했던 조선후기의 상황과, 3,000명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다음 차례의 도시인 영평(2,500명), 통진(2,400명)을 비롯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곳은 3,000명에 많이 미달하므로 제외하였다. 수원의 도회부 인구는 유수부가 설치된 이후의 기록인 畿甸營事例의 도회부 호구수 2,089에 5.16을 곱해 얻은 수치이다.
- 16) 郡縣之制 宜以民戶多少 田結廣狹 爲之等級, 經世遺表 卷4 天官修制 郡縣分等
- 17) D기능은 다른 도시기능의 소유정도가 같을 때 도시 순위를 정하는 지표로만 사용하였다.

文 獻

姜萬吉, 1972, “開城商人 研究,” 韓國史研究, 8호, 韓國史研究會.

- _____, 1984, 朝鮮時代 商工業史 研究, 한길사.
- 김두섭, 1991, “조선후기 도시에 관한 인구학적 접근,” 韓國社會學, 24 여름호, 韓國社會學會.
- 남영우, 1985, 都市構造論, 法文社.
- 孫禎睦, 1977,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一志社.
- 劉元東, 1984, 韓國 近代 經濟史 研究, 一志社.
- 崔永俊, 1990, 嶺南大路,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國譯 韓國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資料調查室.
- 大東地志, 金正浩, 漢陽大學校 國學研究院 影印本, 1976.
- 輿地圖書, 國史編纂委員會 影印本, 1973.
- 戶口總數, 서울大學校 影印本, 1972.
-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 Carter, H., 1956, The Urban Hierarchy and Historical Geography, *Geographical Studies*, 3, 85-101.
- Chang, S.D., 1961, Some Aspects of the Urban Geography of the Chinese Hsien Capital, *A. A. G.*, 51(2), 21-36.
- Corfield, P.J., 1982, *The impact of English towns 1700~1800*,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Mumford, L., 1961, *The City in History*, Pelican Books, London.
- Rozman, G., 1973, *Urban Networks in Ching China and Tokugawa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joberg, G., 1960, *The Preindustrial City*, The Free Press, New York.
- Slatter, T.R., 1985, The urban hierarchy in medieval Staffordshire,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11(2), 115-131.

A study on the Dohoe Towns on Kyōnggi Province of the late Chosūn Dynasty

Jang Seung Il

Summary

Kyōnggi Province in the late Chosūn dynasty was a center of superior government offices including 'Han' River water-road transportation and was located in the middle of an 'X'-shaped arterial road network. Because of these reasons, Kyōnggi Province had a faster inflow of commodities, informations and technics compared with the other province. At this period of time, every local 'Eup' (name of administrative district) had not been affected by their above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had their own autonomy. For this reason, every 'Eup' could be developed as a town, even if its size was small when it had

sufficient internal growing conditions. Moreover, the markets ('Si-Jōn') in big towns and periodical markets which were spread over the Kyōnggi Province played role of commercial functions of town. And because military bases for the defence of the royal capital in Kyōnggi Province also took parts of a non-agricultural city role, Kyōnggi Province had much more possibilities of growing as a town rather than the other provinces.

The towns of the late Chosūn Dynasty were, except the capital and superior administrative districts which were governed by the 'You-Su', small towns which had only about 3,000~5,000 people. Most of the town dwellers were local officials, nobles, merchants, craftsmen and slaves.

And the farmers who lived near town became a pseudo-towner through suburb agriculture. Among these people, the merchants were leaders of townization. The downtowns were affected by the landform and traffic roads.

The most fundamental function of towns were administrative. The official's grade, which was dispatched to th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Kun' or 'Hyun'), was decided by the size of population and agricultural land of each county. Large county which was governed by a high ranking official had more possibilities to develop as a large town. Because they supervised other officials of lower rank and obtained more land and population for the town.

The phenomena of farm abandonment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1598 stimulated the development of towns for commercial function. The commercial functions of towns were evident in the *Si-Jŏn* or *Nan-Jŏn* (names of markets) in the big cities such as Hansŭng and Kaesŭng, meanwhile in the local areas it was emerged in the shape of periodical market networks as allied with near markets (which were called as *Jang-Si*) or permanent markets which were grown up from periodical markets. These facts of commercial development induced the birth of commercial town.

Kyŏnggi Province showed the weak points of its defense system during both wars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Manchu's Invasion in 1636). The government reinforced its defense system by adding 4 'You-Su-Bus' and several military bases. Each local districts ('Eup'), where *Geo-Jins* were established, were stimulated to be a town while *Jin-Kwan* system were adjusted and enforced. Among *Dok-Jins* (name of solitary military bases), *Youngjongjin* was grown up as a large garrison town which only played a role of defense.

The number of towns that took roles of non-agricultural functions in Kyŏnggi Province was 52. Among these towns, 29 were developed as big towns which had above 3,000 people and most of these towns were located on the northwest-southeast axes of 'X'-shaped arterial traffic network in the Chosŭn Dynasty. This fact points out that the traffic road is one of the important causes of the development of towns.

When we make hierarchy of the towns of Kyŏnggi Province according to its population and how many functions it had, we can make it as 6 grades. The first grade town 'Hansŭng' was the biggest central town of administration, commerce and defense. The 2nd grade town includes 'Kaesŭng' which had historical inertia that it had been the capital of the Koryo Dynasty. The 3rd grade towns include some 'You-Su-Bus' such as Soowon, Kanghwa, Kwangju and also include Mapo, Yongsan and from this we can imagine that the commercial development in the late Chosŭn Dynasty extremely affected the townization. The 4th-6th grade towns had similar population but it can be discriminated by how many town functions it had. So the 4th grade towns were the core of administration, commerce and defense function. 5th grade towns had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one of commercial and defense functions. 6th grade towns had only one of these functions. When we research and town conditions of each grades as the ratio of non-agricultural population, we can find out that the towns from the 1st grade to 4th grade show difference by degree of townization but from the 4th grade to 6th grade towns do not show big difference in general.

Key Words: preindustrial city, town, town function, town hierarchy.